

제 6 장 광적면(廣積面)



가래비 3·1운동 기념비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 석적면(石積面) 이패중리(二牌中里)·삼패하리(三牌下里)·삼패상리(三牌上里)·대조동(大棗洞)·신촌리(新村里)·거마동(車馬洞)·효가동(孝佳洞)·행동리(杏洞里)·대야지리(大也池里) 등 9개 리 전부, 이패하리(二牌下里)·회촌리(檜村里)·항동리(項洞里) 일부, 백석면의 능내리(陵內里)·고릉리(古陵里)·단촌리(短村里)·연평리(蓮坪里) 등 4개 리의 일부, 광석면(廣石面) 일패리(一牌里)·이패리(二牌里) 일부와 삼패리(三牌里)·사패리(四牌里) 전부, 파주군 광탄면(廣灘面)의 발랑리(發郎里) 일부, 적성군(積城郡) 남면의 상수리(湘水里)·매곡리(梅谷里) 일부, 파주군 천현외패면(泉峴外牌面)의 삼현리(三峴里) 일부를 통합하여, 광석면의 ‘廣’자와 석적면의 ‘積’자를 따서 광적면이라 하였다. 그리고 석우리(石隅里)·덕도리(德道里)·효촌리(孝村里)·가납리(佳納里)·광석리(廣石里)·우고리(遇古里)·비암리(比岩里) 등 7개 리를 두었다.¹⁾ 이 때 면사무소를 가납리에 두었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73년 7월 덕도리를 1·2리로, 비암리를 1·2리로 분할하여 모두 9개 리가 되었고, 1975년 1월 가납리를 1·2리로, 효촌리를 1·2리로 분할하여 모두 11개 리가 되었다. 1980년 1월 가납 1리를 1·3리로, 비암 2리를 2·3리로, 덕도 1리를 1·3리로 재분할함에 따라 14개 리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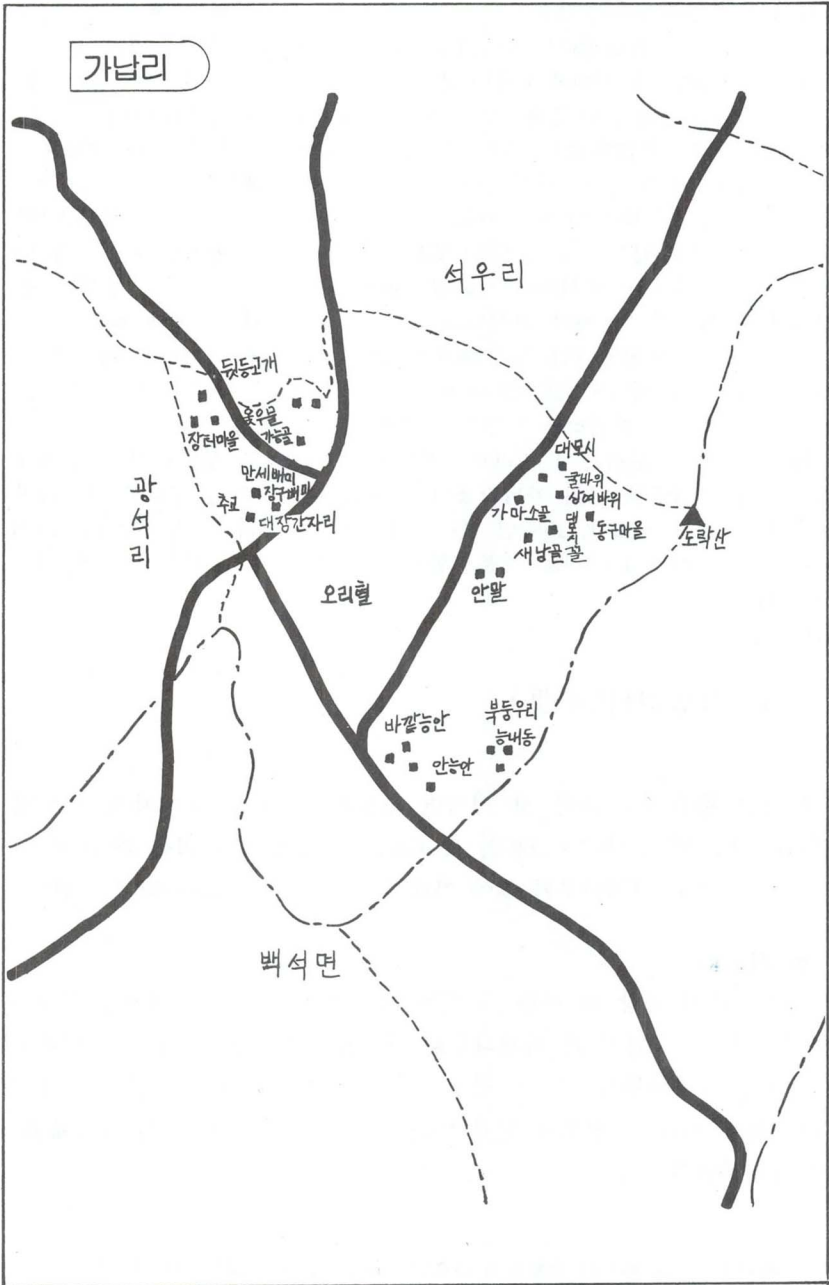
1. 가납리(佳納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석적면 행동리·이패리·대야지리, 광석면 일패리, 백석면 능내리·고릉리 등 6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가납리라 하였다. 가래나무가 많아 가래비·가납·추교(楸橋)라고도 한다.

● 가래비

광적면에서 가장 큰 마을. 조선조 때 마을 입구 하천 변에 소시장이 있었는데, 그 하천에 큰 가래나무로 다리를 놓았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다. 또는 가래나무가 흔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하며, 한자말로는 추교동(楸橋洞)이다. 조선조와 일제시대에는 한자음을 빌려 가라비(加羅非)로 표기하였다.

1) 朝鮮總督府,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111·124쪽.



● 가마소골

가납 2리 대모시 북쪽에 있는 마을. 큰 뿔바위가 있는 마을.

● 건너말

대모시 남서쪽에 있는 마을. 가래비장터 건너쪽에 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 능내동

가납교 남동쪽에 있는 마을. 능안말이라고도 한다. 구한말 최씨촌(崔氏村)에 능(陵)을 만들려고 계곡 일부에 석축까지 하였다가 그만 두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 한다.

● 대모시

가납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 가납리를 지나던 개울이 이 마을을 끼고 흐르는데, 그 모양이 못과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부락 가운데 큰 못이 있었으므로 대지동(大池洞)이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다.

옛날에 한 중이 이 마을 부자에게 시주를 받으러 갔다가 푸대접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부자에게 마을 개울을 뒤쪽으로 흐르게 하면 더 잘 살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부자가 개울의 방향을 저수지 쪽으로 돌리자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동구마을

가납 2리 대모시 북쪽에 있는 마을.

● 바깥능안

능내동 서쪽에 있는 마을.

● 새남굴

대모시 남쪽에 있는 마을.

● 셋말

안능안과 가래비 사이에 있는 마을.

● 안능안

능내동 서쪽 안쪽에 있는 마을.

● 안말

가래비 안쪽에 있는 마을.

● 장터마을

광적면사무소 남쪽에 있었던 마을. 옛날부터 5일장이 섰던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 축동밖

가남국민학교 남서쪽에 있는 마을. 추교 바깥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축동안

가남국민학교 북동쪽에 있는 마을. 추교 안쪽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흔덕골

옛날에 허씨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라고 해서 허터굴이라고 불리어 오다가, 1910년 이후 흔덕골로 불려지고 있다 한다.

○ 가능골

현재 비행장 근처의 가느다란 골짜기.

○ 굴바위

대모시 동쪽 도락산에 있는 바위. 굴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굴이 커서 한번에 100여 명이 들어갈 정도라 난리 때 피난하는 장소로 쓰였다. 이 굴은 주내면 산북리쪽으로 뚫려 있다고 한다. 지금은 사격장의 유탄이 날아와 사람들의 인적이 뜸하다.

○ 그루고개

대모시에서 도하리로 넘어가는 고개.

○ 능안 개울

능내동에서 가남 1리로 흐르는 개울.

○ 대모시골

축동안 연못이 있던 동쪽의 골짜기.

○ 대장간 자리

가래비 삼거리에서 좌측 윗쪽에 있는 터.

○ 도당굿

대모시에서 도락산의 석산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터. 대모시 주민들이 풍년과 마을의 평안을 빌면서 2-3년에 한 번씩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지금은 길이 확장되어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 뒷등고개

가래비 뒤편에 있는 고개.

○ 들어엮은 바위

대모시 동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바위. 산신할머니가 냇물에서 세수를 하는데 계가 할머니의 손을 물자, 화가 나서 계는 해유령쪽으로 던지고 냇가의 바위는 치마에 싸서 도락산에다 들어서 올려 놓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바위 위에 또 하나의 바위가 얹혀져 있다.

○ 뿔바위

대모시에 있는 바위.

○ 만세배미

광적면사무소 앞의 논. 3·1운동 당시 이곳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먼뭇밑덩어리

가남 2리에 있는 산.

○ 모새논

축동안 연못 둑이 터지면서 앞들에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논.

○ 목정들

대모시에 있는 들.

○ 방아다리

가남 2리 대모시 가는 곳에 있었던 다리. 방앗간이 있었다고 하여 불

은 이름이다.

○ 방아다리는

축동안에 있는 논. 마을 사람들은 축동안에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 제방이 어느 날 긴 장마로 터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방이 터지기 전에는 연못으로 물이 흘러들었다고 한다.

○ 봉바위

가남 1리 새낭골에서 1.5km 정도 떨어진 도락산 남쪽 자락에 있는 바위. 이곳에 봉이 살았다 하여 봉은 이름이다.

○ 부엉바위

대모시 북동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바위. 옛날에 엄청나게 큰 부엉이가 이 바위 아래에 새끼를 쳤다고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부엉이를 잡아 버렸기 때문에 이후 볼 수 없다고 전해진다. 또는 부엉이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북동우리

능내동 북동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등성이. 도락산 맥이 북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린 것이 마치 벼들과 같이 생겼고, 지금의 3리 마을회관 앞의 산등성이는 벼들의 북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도로가 나면서 없어졌다.

○ 샷갓바위

대모시 동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바위. 샷갓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상여바위

2리 도락산 옆에 있는 바위. 상여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대보름날 달이 상여바위 북쪽으로 뜨면 풍년이 들고, 남쪽으로 뜨면 사람이 죽는 등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

○ 새낭골

대모시 북동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

○ 샘논

대모시에 있는 논. 눈에 물이 잘 나온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섬밭

모새논 앞 약 500여 평의 밭. 축동안 연못이 터져 모새논이 생길 때 흘러 들어온 흙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 안리자

가래비 안쪽에 있는 들.

○ 약물터 골짜기

대모시 동쪽 도락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 물맛이 좋고 시원한 곳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사격장 맞은편이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 여우골

능내동 도락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

○ 여우방굴

대모시 북동쪽 도락산 자락 새낭골 바로 옆에 있는 굴. 돌로 된 굴에 여우가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굴이 밑으로 나 있어 굴 입구에서 불을 지펴도 여우를 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

○ 오리혈

건너말 서쪽에 있다. 오리를 기르면 오리가 붕어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요즘도 가남리에서는 오리를 기르지 않는다고 한다. 붕어혈이라고도 한다.

○ 옷우물

가래비 삼거리 북쪽 장부고개 남쪽에 있는 우물. 옷 읊은 사람들이 이 물로 씻으면 나왔다는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옛날에는 수량이 많았으나 지하수 개발로 물이 말라 메꾸어졌다고 한다. 터는 그대로 남아있다.

○ 장구배미

광적면사무소 앞 만세배미 바로 밑에 있는 논. 양쪽은 불룩하고 가운데는 오목한 장구모양의 논이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장부고개

가래비 삼거리 북쪽에 있는 고개. 1리에서 2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절터

안능안에 있는 터. 절터가 있어 생긴 이름이다.

○ 정기터

대모시에 있는 터. 지금은 밭으로 변하였으며 정가터라고도 한다.

○ 줌먹은 바위

봉바위와 해매기 중간에 있는 바위. 줌이 먹은 것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추교(楸橋)

가남 1리와 3리 사이 개울에 있는 다리.

○ 큰골

가남리에 있는 큰 골짜기.

○ 큰 뿔바위

2리에 있는 바위. 옛날 이 바위에 이무기가 살았는데, 이 곳에 소를 매어두면 이무기가 나와 잡아먹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과 함께 벼락이 치자 이 바위가 갈라지면서 이무기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해매기

새낭골 동쪽에 있는 산.

○ 황새고개

새낭골에서 능내동로 넘어 가는 고개.

2. 광석리(廣石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광석면 이패리·삼패리, 백석면의 단촌리·연평리 등 4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광석리라 하였다. 광석리

라는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① 이곳의 밭 1,000여 평에 돌이 한 자(尺) 깊이로 깔려 있다 하여 붙여졌다. ② 마을에 넓은 돌이 있어 넓은들·나븐들이라 부르며, 한자말로 광석리라 한다.

● 광릉말[光陵洞]

나븐들 북동쪽에 있는 마을. 옛날 누군가가 능터를 정하러 왔다가 물이 없어 그만두게 되었지만, 그대로 능말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는 실제로 장수들쪽에 능이 있었다고도 한다. 현 남양주군 진접면에 있는 광릉을 당초 이 부락에 예정했었다는 설도 있다. 광석의 광자와 능말을 합쳐 광릉말이 되었다.

● 나븐들

아랫광릉말 남서쪽에 있는 마을 및 들. ‘넓은들’이 발음변화한 것이다.

● 뒷골말

민재의 북서쪽에 있는 마을. 뒤에 있는 마을이라 붙은 이름이다.

● 뒷들[後坪里]

광석리 뒤에 있는 마을. 평야의 돌이 넓어 붙인 이름이다. 뒤뜰이라고도 한다.

● 민재

광적면사무소 북서쪽에 있는 마을. 이 부락 뒷산에 나무가 없어 ‘민대머리’라고 불렀다. 후에 어느 현인(賢人)이 문한(文翰)을 많이 배출하라는 뜻에서 문성부락(文城部落)으로 명명한 데서 유래되었다. 문재라고도 한다.

● 샅푸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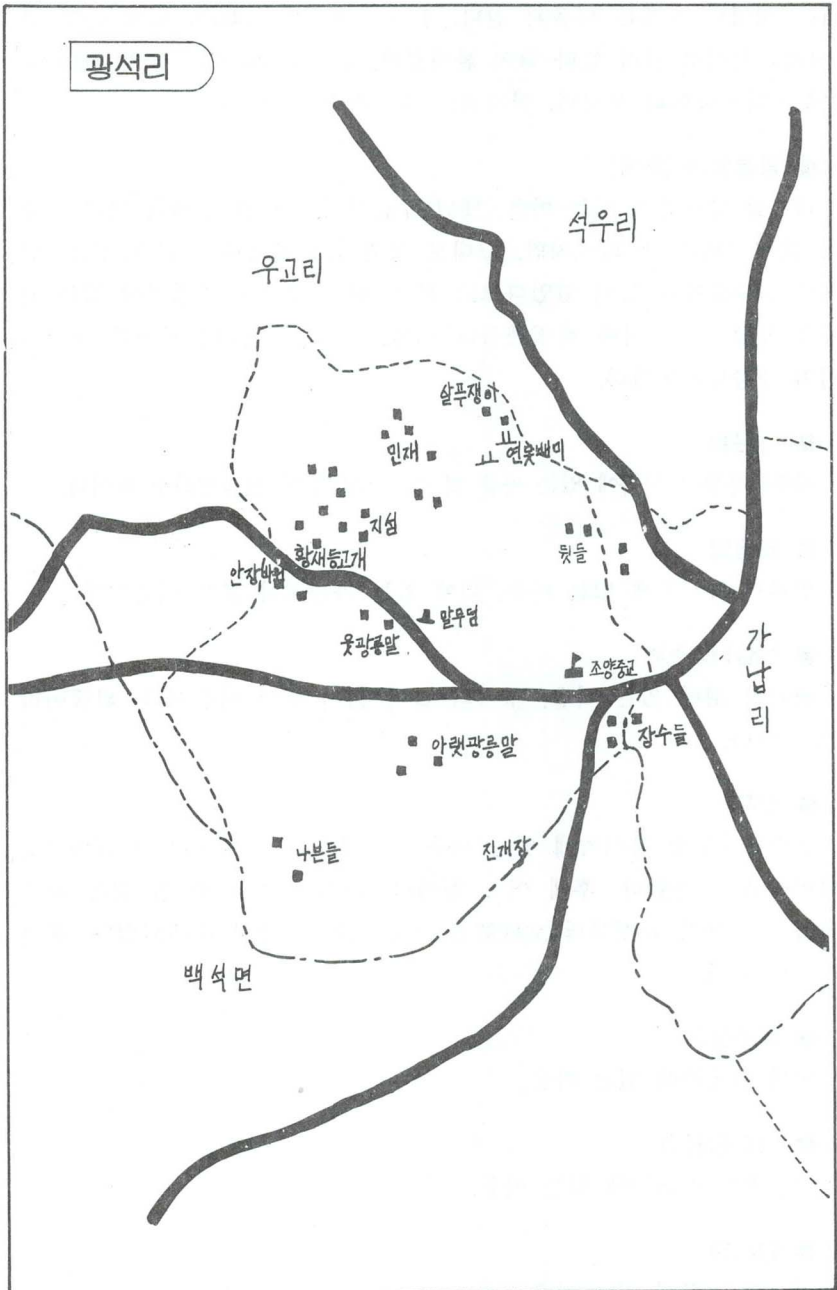
민재 북동쪽에 있는 마을.

● 아랫광릉말

광릉말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

● 양지말

민재의 서쪽에 있는 마을.



광석리

우고리

석우리

가남리

백석면

안장식읍

황새들고개

지섬

민재

살푸쟁이

연꽃배미

뫼들

웃광릉말

말우현

조양원

아랫광릉말

장수들

나븐들

진개장

● 옷광릉말

광릉말의 위쪽에 있는 마을.

● 음지말

민재 남쪽에 있는 마을. 응달말이라고도 한다.

● 잠수들[長水坪]

광석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 및 들. 마을 앞에 긴 개울이 흘러 붙은 이름이다.

● 지섬

민재와 양지말·음지말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마을 및 산. 음지말과 양지말을 합쳐 지섬이라고 한다. 섬 또는 배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일설에는 옛날 개울 가운데의 섬이었다고 한다. 지도(芝島)·지산동(芝山洞)·지초산 등으로도 불린다. 산은 지금 공장터로 변하였다.

○ 가업교(加業橋)

유양리에서 서쪽으로 약 10리 떨어진 광석면에 있었던 다리.²⁾

○ 가업장(加業場)

유양리에서 서쪽으로 약 10리 떨어진 광석면에 섰던 장.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장은 매월 3일과 8일에 열렸다.³⁾

○ 광바위산

지섬 동쪽에 있는 산.

○ 등정외

광바위산 옆에 있는 정자터. 지금은 배나무밭으로 변했다고 한다.

○ 말무덤

조양중학교 서쪽에 있는 무덤. 마을 사람들은 임진왜란 당시 많은 말들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한다. 2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1개만 남아 있다

2) 『楊州牧邑誌』(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京畿道 ①, 1985, 9쪽)

3) 위와 같음.

고 한다.

○ 살푸쟁

살푸쟁이 남쪽에 있는 논.

○ 선반배미

산을 등지고 있고 마치 선반처럼 높은 곳에 있어 붙은 논 이름.

○ 속옷논배미

광적면사무소 근처 장릉 공장 자리. 여자의 속옷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솜물

물이 맑고 솟아오르는 모양이 솜처럼 피어 오른다 하여 붙은 우물 이름.

○ 안장바위

황새등고개에 있는 바위.

○ 연못배미

살푸쟁이 동쪽에 있는 논. 옛날 저수지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없다.

○ 왕대우물

광릉말과 나븐들 사이에 있는 우물. 수량이 많아서 여러 마지기의 논에 물을 댈 수 있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조선조 선조가 의주로 몽진하였다가 한양으로 돌아올 때 이 물을 먹었다고도 한다.

○ 우굴 개울

우고리쪽에서 흘러오는 개울.

○ 은서말논

광릉말에 있는 논. 옛날에 어느 과부가 은 서 말을 주고 이 논을 샀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작은개

장수들 동쪽에 있는 내.

○ 진개장(塵芥場)

장수들 남서쪽에 있는 터. 옛날 쓰레기를 버렸던 곳이라고 한다. 지금은 축산단지가 들어섰다.

○ 큰골

한거름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토갱이

230번지에 있는 논. 토끼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황새등고개

웃광릉말에서 음지말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곳에 황새가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성황당도 있었다고 한다.

3. 우고리(遇古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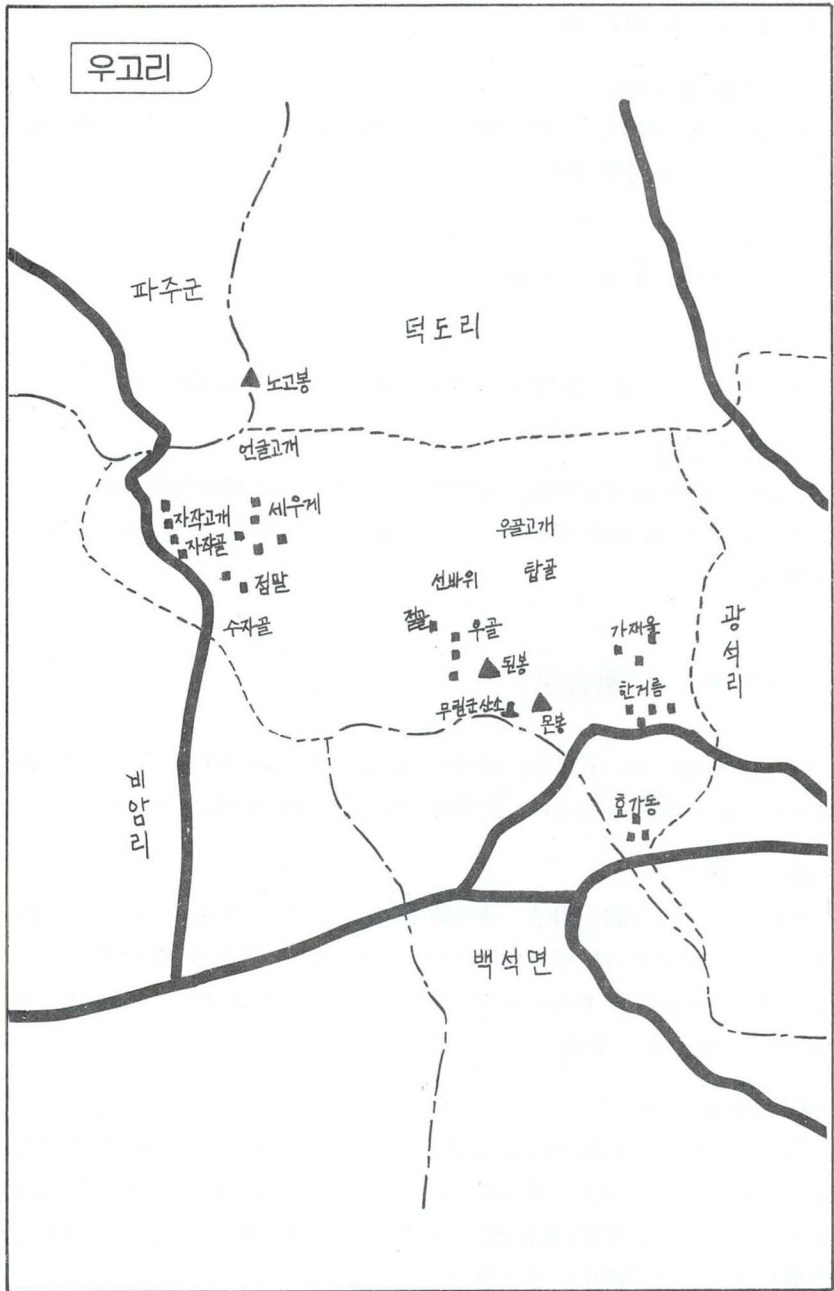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광석면 삼패리와 사패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우고리라고 불렀다. 소가리 또는 효가리라고도 부른다.

● 가재울

한거름 북쪽에 있는 마을. 가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조선조 연산군 때 임금의 사냥터로 지정되어 금표를 쳤는데, 이 금표 왼쪽의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하여 가좌동(佳左洞)이라 하였으나 가재울로 바뀌었다고 한다.

● 세우계〔三峴〕

우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 노고산 낙맥이 동서북으로 에워싸 병풍을 두른 것 같고 남으로만 계곡이 트여 물이 흐른다. 다른 부락들과 연결되려면 북쪽은 갈곡령(葛谷嶺), 동쪽은 점령(店嶺), 서쪽은 화암령(化岩嶺) 세 고개를 넘어야 함으로 붙은 이름이다.



● 신촌·점말[店村]

우골 서쪽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광석리에서 나는 점토로 질그릇을 구웠다고 전해진 데서 유래되었다. 항아리, 독, 뚜껑배기, 동이, 화로, 시루 등을 만들어 여름철에 외상으로 나누어 주고 가을에 추심(推尋)했다. 광적면, 백석면, 남면, 파주 등지에 공급하였다 한다.

● 안세오개

우골고개, 언골고개, 자작고개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 세 개의 고개에 싸여 있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안세고개라고도 한다.

● 우골[遇谷]

가재울 서쪽에 있는 마을. 여러 개의 골짜기가 이곳에 하나로 모인다.

● 통수골

효가동 서쪽에 있는 마을.

● 한거름[閑居-]

효가동 북쪽에 있는 마을. 가진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가하게 산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벼슬을 그만둔 선비들이 이곳에 내려와 한가하게 풍류를 벗하며 살았다고도 한다. 양지말과 음지말로 되어 있으며 우고리에서 가장 으뜸되는 마을이다.

● 효가동(孝佳洞)

구한 말에 효자가 났다고 하여 생긴 마을 이름. 소가리라고도 한다. 옛날 이곳에는 통수골, 매체입골 등의 마을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

○ 국사봉

세우개 정북쪽의 산.

○ 노고봉

세우개 북쪽에 있는 높이 400.9m의 산. 노고성 할머니가 치마로 돌을 옮겨 성을 쌓다가 불국산과 노고봉에 두 다리를 걸치고 오줌을 누고 있었다. 그 때 노고성 할머니 밑에 있던 게가 뜨거운 소변에 놀라 그만 소문을 물었다. 화가 난 노고성할머니는 게를 고개 넘어 파주로

던졌다. 이와같이 ‘노고’가 붙은 지명은 산봉우리가 늙은이처럼 굽어 있다거나, 늙은 할미 귀신이나 선녀에 관한 전설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봉화대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으며 지금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비슷한 위치에 석적산(石積山)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 석적산이 노고산일 것으로 추정된다.

○ 돌아다발

국사봉 앞에 있는 발. 옛날 조정에서 무덤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왔다가, 국사봉 산세가 북쪽으로 돌아선 형태라고 하여 다시 돌아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된봉

우골 동쪽에 있는 봉우리. 경사가 급해 오르기가 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두루봉

둥그렇게 생겼다는 봉우리. 또는 두릅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문봉

한겨름 서쪽에 있는 봉우리. 약 80년 전 무림군의 묘소를 충청도에서 이곳으로 이장할 때 묘자리는 좋으나, 묘소 뒤(용미)가 너무 협소하다고 하여 인력으로 흙을 모아서 봉우리를 만들었다. 모아서 만든 봉우리라 하여 모은 봉우리라 하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문봉으로 불리게 되었다.

○ 삼현고개

세우계에서 우골로 가는 고개. 고개 세 개가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 선바위

우골 북쪽에 있는 바위. 바위가 서 있는 형태라 붙은 이름이다.

○ 선위봉

세우계에 있는 봉우리.

○ 수자골

점말 남서쪽에 있는 고개.

○ 안산

점말 동쪽에 있는 산.

○ 언골고개

노고봉 남쪽에 있는 고개.

○ 요강바위

황새등고개에 있었던 바위. 노고할머니가 눈 오줌자국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바윗가루를 손에 묻히면 빨강게 물이 들었다고 하여 봉숭아 바위라고도 한다.

○ 용의 우물

용이 물을 대준다고 믿고 있는 데서 유래된 우물. 수량이 풍부하다고 한다.

○ 우골고개

우골 북동쪽에 있는 고개.

○ 자작고개

자작골 북쪽에서 비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산이 험하여 길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자작골

세우개 남서쪽에 있는 고개.

○ 절골

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청룡고개

가재울에서 한거름으로 가는 고개.

○ 탑골

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탐골고개

탐골에서 우골로 가는 고개.

○ 황새등

노고산과 도락산 사이에 있는 고개. 옛날 노고할머니(또는 선녀)가 이곳을 지나다 두 산의 봉우리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 오줌을 누 곳이다. 지금은 도로가 나 있다.

4. 비암리(比岩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광석면 사패리, 파주군 천현외패면 삼현리, 광탄면의 발랑리 등 3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비암리라고 불렀다. 견준바위가 있어 견준바위, 한자말로 비암이라 하였다.

● 검은돌·현석(玄石)

괴음 북동쪽에 있는 마을. 커다란 검은 바위가 있어 생긴 이름이다. 들맹이도 많고 가뭄도 심한 곳이었다 한다.

● 견준바위

마을 및 바위 이름. 발랑저수지 삼거리에서 동쪽 왼편에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었다. 사람들이 뚫린 구멍에 나무막대기를 견주어 점을 쳤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멍바위라고도 한다. 바위는 도로확장으로 없어졌다. 그리고 내비에서 외비로 가는 길 왼쪽에 있는 마을도 견준바위라 한다.

● 괴음(槐陰)

견준바위 동쪽에 있는 마을. 큰 느티나무의 그늘이 온 마을을 덮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 기우리·지곡(芝谷)

견준바위 남동쪽에 있는 마을. 골짜기가 많아 지곡동이라 했는데 1910년 이후 기우리로 불리고 있다. 난초가 많다 하여 지곡이라고도 한다.

● 내비(內比)

견준바위 주위 지역의 마을.

● 삼바골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물 세 개가 있는 마을.

● 송구래미·송현

괴음 북서쪽에 있는 마을. 조선 초 이 부락 골짜기에 아홉 개의 절이 있었고 소나무가 무성하여 송구암이라 불리워진 데서 유래하였다. 송고암이란 절이 있었다고도 한다.

● 쇠우계·외비(外比)

비암리 바깥쪽에 있는 마을. 고개를 세 개 넘어간다 하여 세고개가 쇠우계로 변한 것이다.

● 아래괴음

괴음 아래쪽에 있는 마을.

● 웃괴음

괴음 윗쪽에 있는 마을.

● 천태동(天台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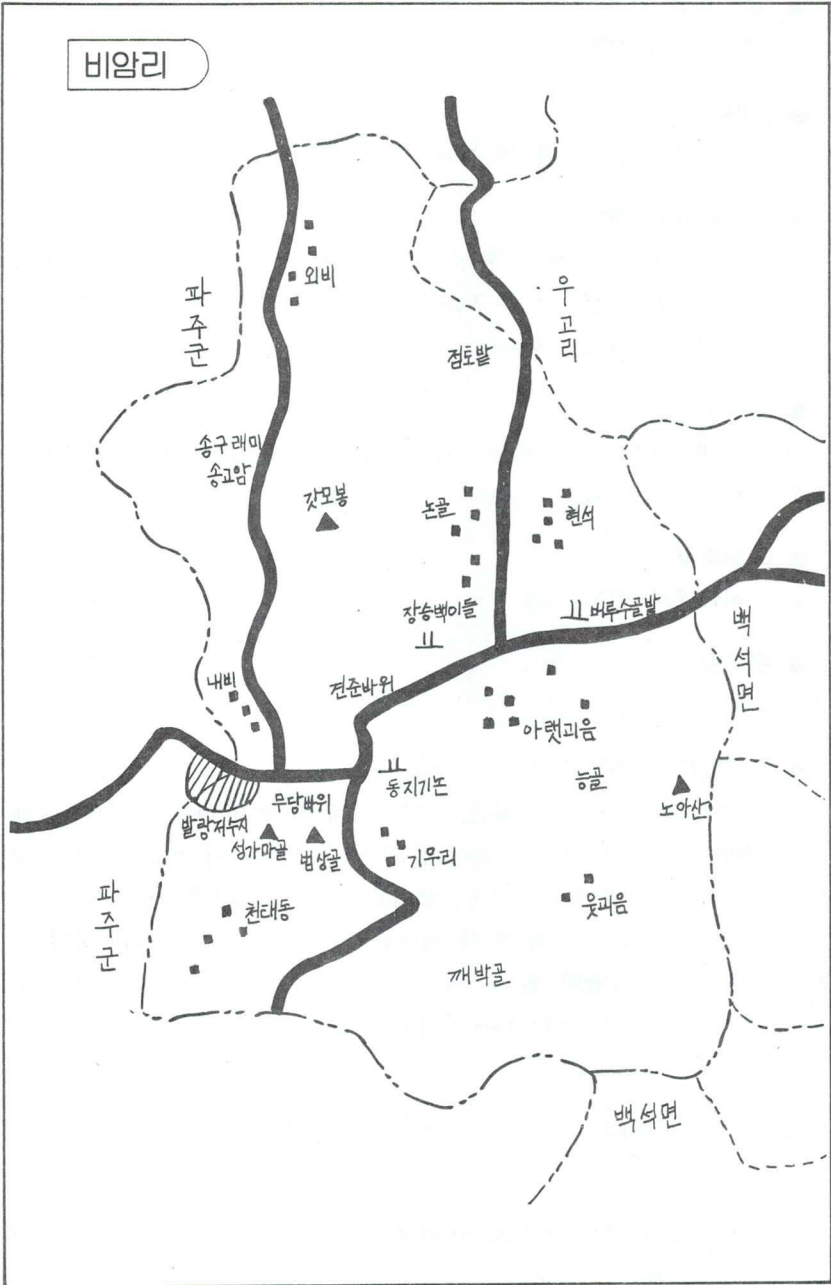
견준바위 남서쪽에 있는 마을.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뜻이다. 본래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하늘의 삼태성(三台星)이 비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천태동은 『정감록』(鄭鑑錄) 비결(秘訣)에 피난 십승지지(十勝之地)로 이름이 나서 일제 때에는 평안도 사람들이 피난하여 머리도 깎지 않고 살았다 한다. 이곳에 석굴이 있는데 사람이 살만하고 구들을 놓고 살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 가래골

3리에 있는 골짜기.

○ 갓모봉

내비 북동쪽에 있는 봉우리. 내비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비올 때 쓰는 갓을 닮아 붙은 이름이다.



○ 거력골

웃피옴에 있는 골짜기.

○ 굴바위

3리에 있는 바위. 굴이 뚫려 있어 붙은 이름이다.

○ 기우리골

피옴에서 기우리로 넘어가는 골짜기.

○ 긴등고개

외비에서 현석으로 가는 고개. 고개가 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깨박골

기우리에 있는 골짜기.

○ 노아산(老兒山)

웃피옴 북동쪽에 있는 높이 336.6m의 산.

○ 노적봉

기우리에 있는 산. 노적가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논골

논이 많다 하여 붙은 골짜기 이름.

○ 능골

기우리로 들어가는 방위선 좌측의 골짜기. 새능골이라고도 한다.

○ 능골고개

피옴에서 기우리로 가는 고개.

○ 동지기논

장승백이들에서 개울 건너 맞은편에 있는 논.

○ 두루봉

동그렇게 생겼다 하여 붙은 봉우리 이름.

○ 무녀골

삼형제봉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 무당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 무당바위

발랑저수지 동쪽 산에 있는 바위. 소리를 지르면 산이 울려 소리가 되돌아와서 대답바위라고도 한다.

○ 밤고개

견준바위가 있었던 곳에서 아래편음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곳에 있었던 고개. 도로 확장으로 지금은 없어졌다.

○ 버루수골

견준바위가 있었던 곳에서 조금 동쪽에 있는 밭.

○ 범상골

발랑저수지 동쪽에 있는 산. 성가마골보다 더 동쪽에 있다.

○ 부초당

이곳에 세 개의 부처가 있었다 하여 붙은 골짜기. 어떤 여자 장사가 이것을 봉불사로 옮겼다고 한다.

○ 북바위

부엉골 밑 나비허리에 있었던 바위.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

○ 비암장터

비암 1리 편음부락에 있는 장터.

○ 비암천(比岩川)

냇가에 견준바위가 있어 이를 한자말로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이 천은 임진강으로 흘러간다.

○ 삼밭골·밭골

삼밭이 있어 붙은 이름.

○ 삼형제봉

세 개의 봉우리가 삼형제처럼 나란히 있어 붙은 산 이름.

○ 성가마골

발랑저수지 동쪽에 있는 산.

○ 성구암

비암 3리에 있는 터. 불교가 융성하였던 고려시대에 암자 아홉 개가 모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암자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는 터와 기와 등이 남아있다고 한다.

○ 쇠쟁이고개

비암리에서 백석으로 넘어가는 고개.

○ 어두니고개

외비에서 파주군 어두니로 가는 고개.

○ 에게수 골짜기

발랑저수지 동쪽 골짜기.

○ 애기수바위

빨래하다가 여자가 빠져 죽었다고 하여 빨래구바위라고도 한다.

○ 여자바위

바위의 생김새가 여자의 음부와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며 보지바위라고도 한다.

○ 자작고개

우고 3리에서 갈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 장승백이들

발랑저수지 동쪽 삼거리에서 해유령 방향으로 가는 길 왼쪽에 있는 논.

○ 절골

기우리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점토밭

외비 동쪽에 있는 밭. 토기점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치울고개

외비에서 파주군 법원읍 칠우리로 가는 고개.

○ 큰자리들

기우리에 있는 논.

○ 헐떡고개

현석에 있는 고개. 사람이 헐떡거리며 올라간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활터가 있었다고도 한다.

○ 흥골고개

현석에서 백석면 흥죽리 흥골로 가는 고개.

5. 효촌리(孝村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석적면 거마동·효가동 전부, 신촌리와 회촌리 및 적성군 남면 매곡리 등 3개 리 일부를 병합하여 효촌리라 하였다. 지명은 효가리에서 ‘효’자를, 회촌리 신촌리에서 ‘촌’자를 따서 지었다.

● 가능

효계울의 북쪽에 있는 마을. 휴암공 산소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갈울

우러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

● 거미울[蛛谷]

가래비 삼거리 남쪽에 있는 마을. 부근에 수레네미고개가 있으므로 수레 ‘車’자를 붙여 거마동(車馬洞)이라 부르던 것을 지금은 ‘거미울’이라 부른다.

● 목배미

피고개 남서쪽에 있는 마을. 일명 목배미라고도 한다.

● 미누골

회내미 남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 민씨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바깥안말

안말 동쪽 바깥에 있는 마을.

● 방아머리

미누골 남쪽에 있는 마을.

● 비선말

효계울의 서쪽에 있는 마을. 비석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삼박골

우러리의 북쪽에 있는 마을.

● 솥거물

안태울의 북쪽에 있는 마을 및 들.

● 안말

회내미 북쪽에 있는 마을.

● 안태울

효계울 서쪽에 있는 마을.

● 양주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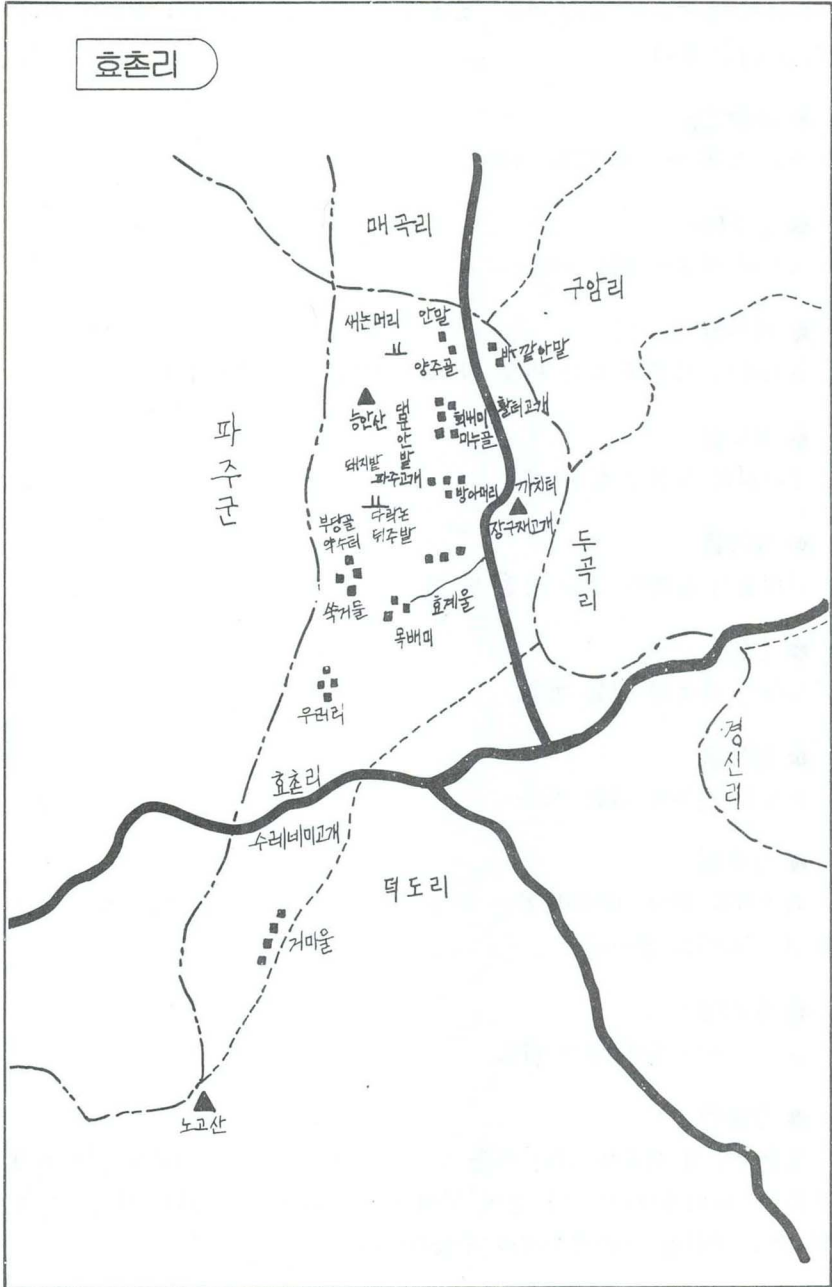
회내미와 안말 사이에 있는 마을.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논이 많아 생긴 이름이라 전한다.

● 우러리

효계울 남서쪽에 있는 마을.

● 정바위

효촌저수지 서쪽에 있던 마을 및 바위. 이곳에 있던 바위도 정바위라 부른다. 바위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다닥바위라고도 한다. 마을 및 바위 모두 지금은 효촌저수지에 수몰되었다.



● 주막거리

수레네미고개 밑 지금의 부대 앞 마을. 고개를 넘으려는 사람들이 모이던 주막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회내미[檜村洞]·큰말

거미울 북동쪽에 있는 마을. 인근에 전나무 숲이 무성하였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또는 옛날 회광(檜鑛)이 있었다고 해서 생긴 것이라고도 한다.

● 효계울[孝溪洞]·소개울

거미울 북동쪽에 있는 마을. 옛날 한 효자가 이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위중한 병에 걸려 생사 기로에서 헤매고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자, 효자는 얼음을 깨고 물에 들어 갔다. 그 때 잉어 한 마리가 튀어나와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어머니의 병환도 나았고 10여 년을 더 사셨다고 한다. 그 후 이 개울을 효계라 하였으며, 동네 이름도 효계동이라고 하였다 한다.

○ 가의능

조선조 때 조정에서 능터를 잡으러 왔던 산. 그러나 산이 북향이라 적합치 않다고 되돌아갔다 하여 붙은 산이름이다.

○ 가재미골

미누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개울가 바위

우러리 남동쪽에 있는 바위. 개울가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장사가 앉았던 자국이 지금도 있다 한다.

○ 국사봉

안말에 있는 봉우리. 봉 위에 범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삼각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 까치터

효촌저수지 서쪽에 있는 들. 옛날 어느 노인이 지관과 함께 묘자리를

보러 갔다. 지관이 묘자리를 일러주면서 돌을 들추자 까치가 날아 올랐다. 그 까치가 이곳으로 날아와 앉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뉘시바위

효촌저수지 서쪽에 있던 바위. 뉘시를 하던 곳이라 하여 붙은 지명이다. 지금은 효촌저수지에 수몰되었다.

○ 능안산

안말 남서쪽에 있는 산. 옛날 임금의 능으로 하려다가 안 했다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 다락논

방아머리 서쪽에 있는 논. 조그마한 논들이 옹기종기 많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다랑논이라고도 한다.

○ 대롱굴이

삼박골 북쪽 바우배기논 바로 위의 논. 자강굴이라고도 한다.

○ 대문안밭

안말 남쪽에 있는 밭. 입구에 큰 대문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댕돌배기

장구재고개 북쪽에 있는 바위.

○ 도토말

효계울 북쪽에 있는 들.

○ 돼지밭

미누골 남서쪽에 있는 밭.

○ 뒤주밭

미누골 남쪽에 있는 밭. 옛날 뒤주 하나와 밭을 바꾸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메물논골

미누골 남동쪽에 있는 논. 물이 부족하여 벼를 심지 못하고 메밀을 심은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 모랫말고개

효촌리에서 구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모래가 많이 난다 하여 이 지역을 사촌리라 하였다 한다.

○ 민산

효계울 동쪽에 있는 산.

○ 바우배기논

삼박골에 있는 논.

○ 박산

우러리 동쪽에 있는 산. 이 산에 있던 송씨네 산소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산소 주위를 사패지로 징발하여 이를 비에 기록하여 남기자,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그 비를 뽑아 수령논에 파묻었다고 한다.

○ 백윤산

백윤능(白尹陵)이 있는 산. 양주 윤씨의 시조를 모신 능이 있다.

○ 범바위[虎岩]

국사봉 위에 있는 바위. 호랑이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바위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빼논

우러리 북동쪽에 있는 논. 거머리가 많다고 한다.

○ 범바위골

쑥거리물 북쪽 범바위산에 있는 골짜기.

○ 범바위산

미누골 남서쪽에 있는 산. 파주쪽에서 보면 범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옛날 범이 많이 살았다고도 한다.

○ 벼락바위

안태울 북서쪽에 있는 바위.

○ 본논고래

우리리 동쪽에 있는 논고래.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박산의 송씨네 비를 파놓았다고 한다.

○ 부당골약수터

미누골 남서쪽에 있는 약수터. 부처를 모실 샘가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새논머리

회내미에 있는 논. 옛날 버드나무가 무성하였던 곳으로 사람들이 개간하여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새너머리라고도 한다.

○ 수레네미고개[車躑峴]·회고개

거미울에서 파주군 법원을 직천리로 가는 고개. 이 고개는 노고성(老姑城) 북쪽에 있는 고개로서 파주 원과 양주 원을 잇는 중간 지점이며, 옛날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따라서 수레가 끊임없이通行하였다. 그래서 붙여진 지명이다. 그리고 지세가 험하여 선 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었다 하여 선고개 또는 선님이고개라고도 불린다.

○ 쉬은배미

회내미 남동쪽에 있는 논.

○ 시은뱀이

장구재고개 앞의 논. 50배미의 논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배미는 논이 한 구역을 말한다. 지금은 아홉배미 정도만 남아 있다.

○ 오병사집터(吳兵使-)

효촌리 249번지 약 5,000평의 밭. 오병사 가문의 고총이라고도 한다. 옛날 이곳에 오병사가 살았다. 부근의 울창한 전나무 숲에 황새가 새끼를 쳤는데, 어느 날 큰 뱀이 황새 새끼를 모조리 잡아 먹는다는 소식을 들은 오병사는 무관의 기질을 살려 화살에 독을 바른 후 활을 쏘아 큰

뱀을 관통하니 뱀은 떨어져 중바위 밑 큰 못으로 사라졌다. 그 후 어느 날 오병사 집에서는 그 못에서 큰 메기를 잡아 국을 끓여 온 집안 식구가 맛있게 먹는데, 오병사가 수저로 헤쳐보니 독약 바른 활촉이 박혀 있었다. 그리하여 온 집안이 참변을 당하고 출타했던 처녀만이 살아 남아 출가하니 오병사의 계통은 끊어지고 폐허와 고층만 남아있다.

○ 자지봉

안말에 있는 봉우리. 일명 자주봉이라고도 한다.

○ 장구재고개

효촌저수지 남쪽에 있는 고개.

○ 접사리골

우러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정바위개울

정바위 옆으로 흐르는 개울.

○ 청룡뿌리

전주 이씨 산소가 있는 곳. 풍수지리상 좌청룡에 해당된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피오개논

피고개 북쪽에 있는 논.

○ 한터고개 · 파주고개

방아머리 서쪽에 있는 고개. 고갯길에 한터라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파주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파주고개라고도 한다.

○ 활터고개

효촌리 회내미에서 남면 구암리로 가는 고개. 활을 쏘던 곳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다. 모랫말고개라고도 한다.

6. 덕도리(德道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석적면 이패중리·대조동 전부와 이패하리·삼패상리·신촌리·적성군 남면 상수리 등 4개 리 일부를 병합하여 덕도리라 하였다. 덕도리라는 지명은 옛부터 도덕을 잘 지키며 이웃간에도 우애가 좋은 곳이라 하여 붙여졌다. 그리고 점미산 뒤쪽이므로 덕뒤·덕디라 하다가 덕도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 갓굴

밤바위에서 길건너 서쪽에 있는 마을.

● 곤줄

보막동 남서쪽에 있는 마을. 곤지리라고도 한다.

● 대춘말[大棗洞]

덕도 북동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커다란 대추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마을 앞 농경지가 넓어 대춘말이라 하였으나 대춘말로 바뀌었다는 설도 있다.

● 바깥말

신촌 바깥쪽에 있는 마을.

● 밤바위

보막동 북쪽에 있는 마을. 밤바위(빗집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보막동(湫幕洞)

덕도 남서쪽에 있고 노고산에서 발원한 울암천이 동쪽으로 흐르는 곳에 자리한 마을. 나라에서 큰 보를 세워 하천의 범람을 막아 주었다 한다. 일설에 의하면 1884년 당시 영의정 김병시가 주선하여 시공 설계하였다고 한다. 보매기라고도 한다.

● 샷갓마을

신사래 북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샷갓처럼 생긴 집이 있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샷갓치계라고도 한다.

● 상원덕

덕도리 위쪽에 있는 마을. 도덕과 우애를 잘 지키는 부락이고 도덕(道德)의 원산지라는 뜻에서 원덕(元德)이라 하였다.

● 신촌·삼거리

오림가리 서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 새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주위에 주둔하여 촌락이 새로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또는 약 1800년부터 마을이 새로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서울, 파주, 남면으로 가는 세 갈래길에 있어 삼거리라고도 한다.

● 안말

삼거리 안쪽에 있는 마을.

● 오림가리(吳林加里)

덕도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 오씨와 임씨가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또는 다른 성을 가진 다섯 가구가 사는 마을이라 오인가리라고도 한다.

● 원덕

상원덕과 하원덕을 합쳐 원덕이라 부른다.

● 주촌말[朱村洞]

덕도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 주씨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쪽박골

보막동 북동쪽에 있는 마을. 우물을 파고부터 망했다고 한다. 풍수지리상, 쪽박에 구멍이 뚫린 이치와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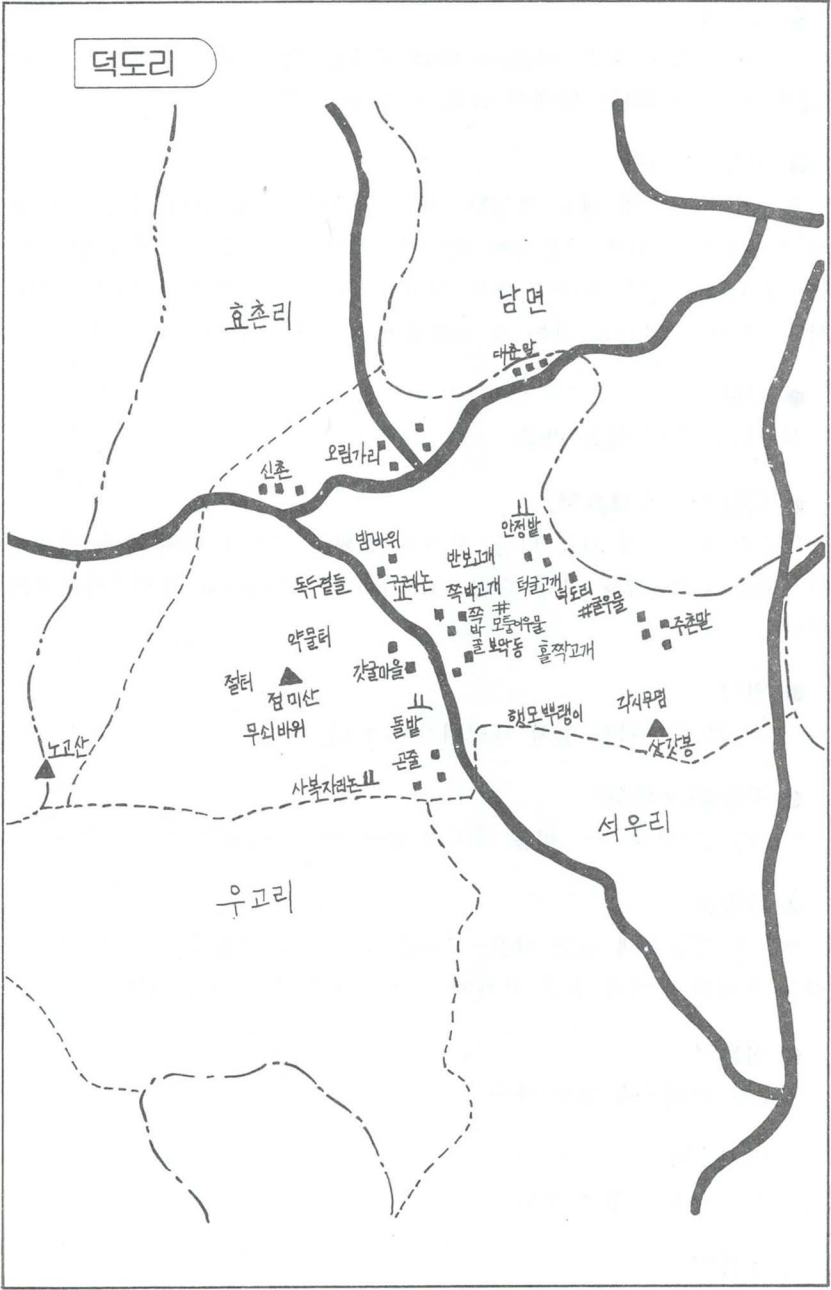
● 하원덕

덕도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

○ 각시무덤

주촌말 남쪽에 있는 무덤.

○ 곳집탄



덕도리

효촌리

남면

덕촌밭

신촌

오림가리

밤바위

독두결들

군래논

반보고개

쪽배고개

촌모듬마을

돌보양동

안정밭

덕근고개

덕도리

주판밭

주촌만

약물리

절터

점미산

무쇠바위

잣골마을

돌밭

곤줄

사북지리논

흘짜고개

각시무덤

삼장봉

햇모백랭이

석우리

우고리

노고산

이곳에 옛 곡식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 마을 사람들은 곡식 단이라 부른다.

○ 과목밭

보막동 북쪽에 있는 밭.

○ 구레논

밤바위 남서쪽에 있는 논.

○ 구석 밤바위밭

밤바위고개 옆에 있는 밭.

○ 굴우물

덕도리 남쪽에 있는 우물. 우물을 만들 때 땅 밑 굴같은 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긴등고개

덕도 1리에 있는 고개. 등성이가 길어서 붙은 이름이다.

○ 나라보

보막동에 있는 보. 보가 굉장히 길고 지면이 험하여, 당시 안목으로는 상상치도 못할 곳에 보 도랑을 내어 석우평야 농지를 관수하였다. 1884년 당시 영의정 김병시의 사유농지가 이곳에 많아 국력으로 설계 시공했다는 일화가 있어 나라보라 불린다.

○ 도당고개

보막동 북동쪽에 있는 고개. 도당봉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도당봉

보막동 북동쪽에 있는 봉우리.

○ 독두걸

갓굴 북서쪽에 있는 들.

○ 돌밭

보막동 남서쪽과 곤줄 북쪽에 있는 밭. 돌이 많기 때문에 붙은 이름

이다. 돛다리밭이라고도 한다.

○ **딴동미산**

보막동 남쪽에 있는 산. 일제 때 길을 내기 위해 이어져 있던 산을 끊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무네미산**

덕도 2리 밤바위고개 옆에 있는 산.

○ **무쇠바위**

덕도 3리 점미산에 있는 바위. 무쇠처럼 단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예전에 절이 있던 자리이다. 이 근처에서 일엽초(一葉草)가 난다고 한다.

○ **문둥이고개**

덕도 2리에 있는 고개. 옛날 문둥이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박수고개**

주촌말 동쪽에 있는 고개.

○ **반보고개**

보막동 북동쪽에 있는 고개. 반박고개라고도 한다.

○ **밤바위고개**

밤바위에서 덕도 1리로 넘어가는 고개.

○ **뱀밭**

밭의 모양이 뱀처럼 길쭉하다고 하여 붙은 밭 이름.

○ **벌판개울**

덕도 1리에 있는 개울.

○ **범박골**

범이 많이 살았다 하여 유래된 골짜기 이름.

○ 보개논

덕도 1리에 있는 논.

○ 부군터

새말 근처에 있는 터. 3년에 한 번 산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도당터라고도 한다.

○ 불당골

흩어진 기와 조각과 주춧돌 등으로 보아 절터로 여겨져 생긴 이름. 지금은 연못자리가 남아 있어 잡목과 잡초가 어지러이 덮여 있다.

○ 빗집바위

보막동 북서쪽에 있는 바위. 큰 바위가 쪼개져서 빗집을 세운 것과 같아 지어진 이름이다. 밤뜰이 붙었다가 떨어진 것 같다고 하여 밤바위[栗巖]라고도 한다. 이 바위는 설인귀가 밤에 감악산에서 던진 돌이라고도 하고, 밤에 땅에서 솟았다고도 한다.

○ 사복자리는

곤줄 남서쪽에 있는 논.

○ 샷갯봉

주촌말 남쪽에 있는 봉우리. 샷갯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샷갯지고개

샷갯마을에 있는 고개. 샷갯고개라고도 한다.

○ 안정밭

덕도 1리에 있는 밭.

○ 약물터

점미산에 있는 약수터.

○ 여호암

여우가 이곳에서 새끼를 낳고 갔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절 이름이라고 하나 지금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 웅덩자리는

주촌말 서쪽에 있는 논. 논이 가운데가 깊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월출봉

덕도 3리에 있는 봉우리. 정월 대보름에 이곳에서 달구경을 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장박고개

석우리에 섰던 장의 밖에 있다고 하여 붙은 고개 이름.

○ 장구논

보막동 남동쪽에 있는 논. 장구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인 명칭이다.

○ 질터

갓굴 서쪽에 있는 터.

○ 점미산·점산(点山)

밤바위 서쪽에 있는 높이 146.2m의 산.

○ 쪽박고개

보막동 북쪽에 있는 고개. 옛날에는 둥근 산이었는데 산 가운데에 길을 내어 둥근 박이 쪼개진 형상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쪽박골 밭

쪽박고개 옆에 있는 밭.

○ 쪽박골 우물

쪽박처럼 생긴 골짜기에 있는 우물.

○ 턱굴고개

쪽박골에서 덕도 1리로 넘어가는 밤바위 아래에 있는 고개.

○ 통안이고개

덕도리에서 통안리로 넘어가는 고개.

○ 피고개

덕도 2리에서 효촌리로 넘어가는 고개. 시주 받으러 간 중이 어느 인색한 부자를 골탕 먹이려고 고개(풍수지리상 용혈)를 끊으면 더욱 부자가 된다고 속여 고개를 끊게 하자 피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 햇모뿌랭이

밤가시 마을 끝을 이렇게 부른다.

○ 흘썩고개

보막동 동쪽 샷갯봉 가는 길에 있는 고개. 한 사람만이 다닐 정도로 흘썩하고 좁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7. 석우리(石隅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석적면 삼패하리 전부와 이패하리·삼패상리 일부를 병합하여 석우리라 하였다. 모퉁이에 돌이 있어 돌모루 또는 석우라 불리웠다.

● 귀신골

신사래 동쪽에 있는 마을. 집이 두 채밖에 없어 을씨년스럽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 끝돌모루

돌모루 동쪽 끝에 있는 마을. 마을 끝 입구에 돌모루라는 돌문이 있었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또한 옛날 이곳에 있던 전나무에 황새가 많이 와서 앉았기 때문에 황새마을이라고도 한다. 이 전나무는 너무 많은 황새 똥으로 죽었다고 한다.

● 돌모루

예전에 돌문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마을 이름. 또는 물이 돌아간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박다리

돌모루 남쪽에 있는 마을 및 골짜기. 산이 마을을 박처럼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박씨 성을 가진 자가 자기 자손이 널리 퍼질 것을 바라며 지었다고도 하며 박달나무가 있었다고도 한다.

● 밤가시

섬말 서쪽에 있는 마을. 밤나무 숲이 울창하여 붙은 이름이다.

● 벌말

비행장 근처의 마을. 예전에는 벌판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한국전쟁 이후 마을이 새로 형성되었다.

● 섬말[島村]

밤가시 북쪽에 있는 마을. 섬과 같이 들 가운데 있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동네에 우물 파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배 밑에 말뚝을 박았다가 빠면 배가 가라앉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는 마을 앞으로는 울랑천이 흐르고, 뒤로는 봇물이 흘러 마을 전체가 물로 둘러싸여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송촌말[松村洞]

석우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 여산 송씨들이 많이 살았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이 송씨들이 무척 부자였는데 도적떼들이 상여나가는 것으로 위장하고 이 마을을 습격하는 바람에 송씨들도 떠나고 마을도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신사래(紳士來)

박다리 남쪽에 있는 마을.

● 윗말

섬말 동쪽에 있는 마을. 섬말 위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풀무골·야동(冶洞)

밤가시 남서쪽에 있는 마을. 풀무의 옛말은 불무이다. 불모지와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풀무는 대장간과 관계가 깊고, 시우쇠를 달구는 일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명칭을 땅이름으로 쓰는 곳은 대장간이 있었거나 시우쇠가 나는 곳임을 보여준다. 동네의 형태가 풀무의 형태

라고도 한다. 지씨(池氏) 성이 많아서 지촌이라고도 불린다.

○ 굴우물

두루미덕에 있던 샘. 바위 가운데 구멍이 굴처럼 뚫려 있는 곳으로부터 물이 나온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노랑새고개

풀무골에서 우고리로 넘어가는 고개.

○ 돌문

마산과 돌모루 중간 섬마을 옆에 있었던 돌문. 그 가운데로 울량천이 흘렀다고 한다.

○ 돌팡모랭이

끝돌모루에 있는 들.

○ 두루미덕

끝돌모루 남서쪽에 있는 야산. 두루미가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뒷벌

송촌말 북쪽에 있는 들.

○ 마산(馬山)

박다리 남쪽에 있는 산. 석우리에는 대감과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어느 날 중이 시주 받으러 이곳으로 왔는데, 한 못된 부자가 “쇠똥도 받느냐”고 물었다. 중이 “시주는 정성입니다”라고 말하니 중을 불러 “쇠똥을 퍼 주라”고 하였다. 쇠똥을 시주하고 중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이 더 부자가 되겠습니까?” 중이 말하길 “울량천의 돌문을 부수어 여기 저기 뿌리고 앞의 산을 터 물길을 내면 더욱 흥하리라”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돌문을 부수고 하나인 산을 둘로 갈라 물 길을 냈다. 그러자 이 마을은 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인 산이 마산과 두루미덕으로 나뉘어 졌으며 마산은 망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또는 산의 형태가 말모양이라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먹골

밤가시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밤나무골

윗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 밤나무가 많아 생긴 명칭이다.

○ 뱀밭

밤가시 남쪽에 있는 밭.

○ 성황당

신사래 남서쪽에 있다.

○ 송가골

신사래 뒷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 옛날 이곳에 송씨들이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울랑천

섬말과 박다리 사이를 흐르는 내.

○ 장박고개

신사래 서쪽에 있는 고개. 고개 위의 산이 장박(큰줄) 모양이라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옛날 가래비를 넘나드는 곳이었으며 가래비시장 밖이라 하여 장박고개라고도 한다.